

2026
중1-1
미래엔(신)

2026 중1-1 국어 미래엔 | 1(1) 길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해당 소단원에서 학습한 비유 표현과 운율 형성 방법을 시와 연관지어 찾아내는 문제들이 출제될 것입니다. 특히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찾아내어 이와 유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구절을 찾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리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16】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은 포도 덩굴

몇백 년이나 자라
땅덩이를 다 덮었다

이 덩굴 가지마다

㉡포도송이 같은 마을이 있고
포도알 같은 집들이 달렸다

포도알이 늘 때마다

포도송이는 커 가고

㉢갈봄 없이 자라 가는

이 덩굴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와 가고
마을과 마을은 이어져서

㉣세계는 한 덩이 과일로
토실토실 익어 가고 있는 것이다.

1.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구체적인 이미지를 독자가 떠올리게 돕는다.
- ② 마음속의 느낌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 ③ 지시적인 의미를 지닌 일상어가 주로 사용된다.
- ④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⑤ 소리내어 읽으면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

2.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을 묘사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 ② 세계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③ 세상을 포도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다.
- ④ 표현 방식으로 인해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⑤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3. <보기>는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보기>

1~2연 : ()이/가 포도 덩굴처럼 땅덩이를 다 덮었다. 이 덩굴 가지마다 포도송이 같은 ()와/과 포도알 같은 집들이 달렸다.

3~5연 : 포도알이 늘 때마다 포도송이가 커 가고 이 덩굴을 통하여 ()와/과 사람이 도와 가고 ()와/과 마을이 이어져서 세계는 한 덩이 과일로 익어 가고 있다.

- ① 길 - 마을 - 사람 - 마을
- ② 포도 - 마을 - 마을 - 사람
- ③ 길 - 사람 - 마을 - 사람
- ④ 집 - 마을 - 사람 - 마을
- ⑤ 길 - 마을 - 사람 - 집

4.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시인이 바라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설명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하나로 연결된 모습
- ② 한 덩어리로 뭉쳐 화합하는 모습
- ③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
- ④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모습
- 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

5. 이 시의 2연에서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마을 - 포도알
- ② 마을 - 덩굴
- ③ 마을 - 가지
- ④ 집(들) - 포도송이
- ⑤ 집(들) - 포도알

6. <보기>는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서술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을/를 사용한다.
 같거나 비슷한 ()을/를 반복한다.
 같거나 비슷한 ()을/를 반복한다.

- ① 음성 상징어, 글자 수, 단어
- ② 음성 상징어, 소리, 단어
- ③ 추상어, 소리, 단어
- ④ 추상어, 글자 수, 단어
- ⑤ 추상어, 단어, 글자 수

7.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운율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 ② 부정적인 상황에 체념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③ 원관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

- ④ 매우 급박한 어조로 낭송하기에 적절한 작품이 아.
- ⑤ 대조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어.

8. <보기>는 ㉠의 표현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길이 여러 군데로 나 있는 모습을 포도 덩굴이 ()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① 어딘가에 의존해 있는 모습
- ② 여러 가지로 뻗어 있는 모습
- ③ 한 군데에 모여 있는 모습
- ④ 서로 얽혀 있는 모습
- ⑤ 담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

9. ㉠, ㉡에 사용된 비유 표현의 명칭과 해당 비유법이 쓰인 시행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源)을 향하여 흐드는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理念)의 꾀대 끝에
 애수(哀愁)는 ㉣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유치환, 깃발

- ① ㉠ - 은유법 - ㉢, ㉤
- ② ㉠ - 직유법 - ㉢, ㉤
- ③ ㉠ - 은유법 - ㉠, ㉢, ㉤
- ④ ㉠ - 직유법 - ㉠, ㉢, ㉤
- ⑤ ㉠ - 은유법 - ㉠, ㉢, ㉤

10. ㉠에 대한 감상인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을과 봄을 줄여 ‘갈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부드러운 운율감을 주고 있다. 이때 ‘갈봄’은 단순히 가을과 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마을은 ()을 나타낸다.

- ① 특정한 계절에 국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 ② 계절이 변해감에 따라 모습이 변해가고 있음
- ③ 계절마다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고 있음
- ④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
- ⑤ 봄에 서로 도움으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음

11. ㉠에 쓰인 비유 표현의 명칭과 설명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① 의인법 -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함
- ② 의인법 - 살아 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함
- ③ 직유법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인양, 듯이’ 등의 말로 직접 빗대어 표현함
- ④ 은유법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무엇은 무엇이냐’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함
- ⑤ 은유법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인양, 듯이’ 등의 말로 직접 빗대어 표현함

12. 이 시에 나타난 ‘세계’의 속성과 유사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표현한 것은?

- ① 세계는 멈추지 않는 시계와 같이 쉼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는 하나의 끈으로 이어진 매듭과 같이 서로 이어져 더욱 단단해진다.
- ③ 세계는 다양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벽돌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 ④ 세계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보석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인다.
- ⑤ 세계는 한 뿌리에서 나온 나뭇가지들처럼 매우 넓게 퍼져 있더라도 같은 근원을 갖고 있다.

13. 이 시를 통해 시인이 드러내고자 한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세계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 ②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이어짐으로써 세계가 성장한다.
- ③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면 세계는 풍요로워진다.
- ④ 각자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 세계가 발전한다.
- ⑤ 모두가 하나의 길로 나아갈 때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14. <보기>는 이 시와 동일한 비유법이 쓰인 노랫말이다. 이 시와 동일한 비유법이 쓰인 표현과 비유법의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다가서지 못하고 해매고 있어. / 좋아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 멀어져 가는 우리 둘의 마음처럼 /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 우리 마치 평행선처럼. / 말도 안 돼, 우리 반드시 만날 거야. / 기다릴 게, 언제까지나.

- 이기·용배 작사, 〈시간을 달려서〉에서

- ① 다른 곳을 보고 있어 - 직유법
- ② 다른 곳을 보고 있어 - 의인법
- ③ 우리 반드시 만날 거야 - 의인법
- ④ 우리 마치 평행선처럼 - 은유법
- ⑤ 우리 마치 평행선처럼 - 직유법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이 작품은 시로, 시에서 사용하는 시어는 사전적, 지시적인 의미를 지닌 일상어와 달리 함축적, 비유적 의미를 지닌다.

- ① 시어는 비유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 ② 시어는 마음속의 감각과 정서를 응축하여 표현한다.
- ④ 시어는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⑤ 시어는 운율감이 있다.

2. [정답] ④

이 시의 중심 소재는 '길'로 작품에 직접 드러나 있다.

- ① 포도 덩굴, 포도알 등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세계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과일이 익어가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③ 길, 마을, 집을 포도 덩굴, 포도송이, 포도알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과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 그림을 보듯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3. [정답] ①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2연 : 길이 포도 덩굴처럼 땅덩이를 다 덮었다. 이 덩굴 가지마다 포도송이 같은 마을과 포도알 같은 집들이 달렸다.

3~5연 : 포도알이 늘 때마다 포도송이가 커 가고 이 덩굴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와 가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져서 세계는 한 덩이 과일로 익어 가고 있다.

②, ③, ④, ⑤는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이 아니다.

4. [정답] ④

시인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은 서로 화합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 ①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 ② 세계가 성숙해 가는 것을 한 덩이 과일이 익어 가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사람과 사람이 도우며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
- ⑤ 서로 도우며 한 덩이 과일로 익어간다고 했으므로 함께 성숙해가길 바라고 있다.

5. [정답] ⑤

2연은 마을을 포도송이에, 집(들)을 포도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하려는 대상인 '집(들)'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인 '포도알'을 짝지은 ⑤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는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았다.

6. [정답] ②

이 시는 음성 상징어(토실토실)의 사용, 같거나 비슷한 소리(ㄹ, ㅇ)의 반복, 같거나 비슷한 단어(포도)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음성 상징어, 소리, 단어가 된다.

①, ③, ④, ⑤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았다.

7. [정답] ①

시어의 반복, 비슷한 소리의 반복, 음성 상징어의 사용 등으로 형성된 운율이 시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밝게 느껴지게 한다.

- ②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시에 쓰인 비유 표현에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원관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④ 밝은 어조로 낭송하기에 적절하다.
- ⑤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8. [정답] ②

길이 여러 군데로 나 있는 모습을 '포도 덩굴'이 여러 가지로 뻗어 있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① 길이 여러 군데로 나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③, ④ 길이 여러 군데로 나 있고, 모여 있거나 얹혀 있지 않으므로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⑤ 길과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9. [정답] ③

㉠은 '길'을 '포도 덩굴'에 이어 주는 말 없이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빗댄 은유법이 쓰였다. ㉡은 '마을'을 이어 주는 말 '~같은'을 사용하여 '포도송이'에 직접적으로 빗댄 직유법이 쓰였다. ㉢, ㉣, ㉤은 '깃발'을 각각 '소리 없는 아우성',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에 비유하는 은유법이 쓰였다. ㉥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같이'를 사용하여 '물결'에 빗대었으며, ㉦은 '날개를 펴다'를 '~처럼'을 사용하여 '백로'에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쓰였다.

따라서 ③이 바르게 짝지어져 있으며, ①, ②, ④, ⑤는 잘못 짝지어져 있다.

10. [정답] ①

'갈봄 없이' 즉, '가을봄 할 것 없이'라는 의미는 특정한 계절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 도와 가고 마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계절의 변화에 따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③ 계절에 상관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④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다.

⑤ 단순히 봄과 가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11. [정답] ④

㉢은 원관념 '세계'를 보조 관념 '한 덩이 과일'에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이 쓰였다. ④는 은유법에 대한 설명이다.

① 의인법에 대한 설명이 맞지만 여기에 사용된 비유 표현은 아니다.

② 의인법이 아닌 활유법에 대한 설명이며, 여기에 사용된 비유 표현이 아니다.

③ 은유법에 대한 설명이나 직유법이 잘못 연결되었다.

⑤ 직유법에 대한 설명이다.

12. [정답] ②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짐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따라서 서로 이어져 더 단단해짐을 표현한 ②가 적절하다.

① 단순히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③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④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⑤ 세계가 같은 근원을 갖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13. [정답] ②

이 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짐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성장하고 성숙해감을 나타낸다.

① 서로 돕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③ 과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실제 농작물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

④ 한데 모여 화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서로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연결된 길을 통해 화합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동일한 길로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 평화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14. [정답] ⑤

이 시에서는 직유법(포도송이 같은 마을, 포도알 같은 집들), 은유법(길은 포도 덩굴, 세계는 한 덩이 과일)이 쓰였다. 노랫말의 '우린 마치 평행선처럼'에서는 우리 사이를 '마치~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평행선'에 직접 빗댄 직유법이 쓰였다.

①, ② 직접 빗댄 직유법이나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④ 은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 ②

<보기>는 비유를 쓰지 않은 글, 이 시는 비유를 사